

코로나19 이후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철형
교장선생님

지난 100년 이래 최악의 감염병으로 불리는 코로나19는 작년 12월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6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매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닥터 뚝(파멸)으로 불리는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부채 증가, 선진국 고령화 등의 열 가지 이유를 들어 1929~1939년 대공황보다 더 깊은 '대대공황'으로 빠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동안 겪어 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까지 더해진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신용통화 시스템의 붕괴와 종말이 머지않았으며, 중중국인 미국이 중국의 차이나머니와 합의하거나 새로운 힘의 대결을 거쳐 지금까지 가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격동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직업군은 점차 도태될 것입니다. 기존에 100년간 지속되어 온 신용통화가 붕괴되고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새롭고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화를 가져 오리라 전망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의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실력을 기르고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요원, 생산 제조 관련 단순직, 치과기공사,

의료진단 전문가, 은행 금융 종사원, 번역가, 창고 관리원, 판매점 계산원 등이 위기의 직업군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전문가, 생명공학자, 로봇공학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 의해 존재 가치가 미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큰 폭으로 달라질 미래에 탄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과 지속적인 독서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 과학, 공학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아우르는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게는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방수칙 즉,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등을 잘 지켜 나와 사랑하는 친구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위해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학사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동산고등학교에서 항상 강조해 왔던 올바른 인성의 실현을 생활 속에서 몸소 보여 준 한 멋진 졸업생의 미담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현재 바이오의약을 전공하며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태양 졸업생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취방으로 귀가하던 중 리어카에 주운 폐지를 신고 힘겹게 가는 한 할아버지

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를 뵈자 자신의 할아버지 생각이 난 김 군은 할아버지를 도와택까지 리어카를 끌어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에 갓난쟁이들이 있는데 분유값이라도 벌러고 새벽에 폐지를 모은다."라고 말씀하시자 김 군은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가족이 해당 사연을 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며 '노란 머리 배재대 청년'을 찾아나섰다고 합니다. 그 글을 계기로 이 할아버지 가족과 김 군의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김 군이 이 할아버지 가족에게 분유 세 통을 전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왔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그 글에다 무엇이 이 학생을 일터로 나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학생의 입장이었다면 할아버지를 돕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부끄럽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족을 만난 김 군은 아이들과 추억을 쌓으라면서 몇 만원을 더 건넸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접한 배재대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수수문하여 김 군을 찾아냈고, 이와 같은 선행을 베푼 김 군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배재대학교 총장은 김 군을 불러 "새벽까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특하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에 흐뭇한 소식을 전해줘 고맙고 대학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군은 "제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도왔을 뿐인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겸손을 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쉬운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을 해낸 김 군입니다. 감동적인 선행을 통해 학교를 빛내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준 우리 동산의 자랑스러운 김태양 졸업생에게 고맙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